

이야기 4 : 모세1 (아기 모세)

주제말씀
[출애굽기 2:10b]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지 40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애굽 땅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자 걱정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때리고, 무섭게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들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여인이 여자 아기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느 날, 애굽에 사는 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이 여인은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어요.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기의 엄마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여인은 갈대 바구니 안에 역청과 송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 후에 그 속에 아기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갈대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은 갈대 속에 숨어서 쫓 지켜보았어요.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공주는 물에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보았어요.

그러자 숨어 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지 물어보았어요

공주는 유모를 찾았어요. 미리암은 신이 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알렸어요. 아기의 엄마는 얼른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자라도록 해주셨답니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 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유모인 엄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다른 왕자들과 함께 궁궐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훌륭하고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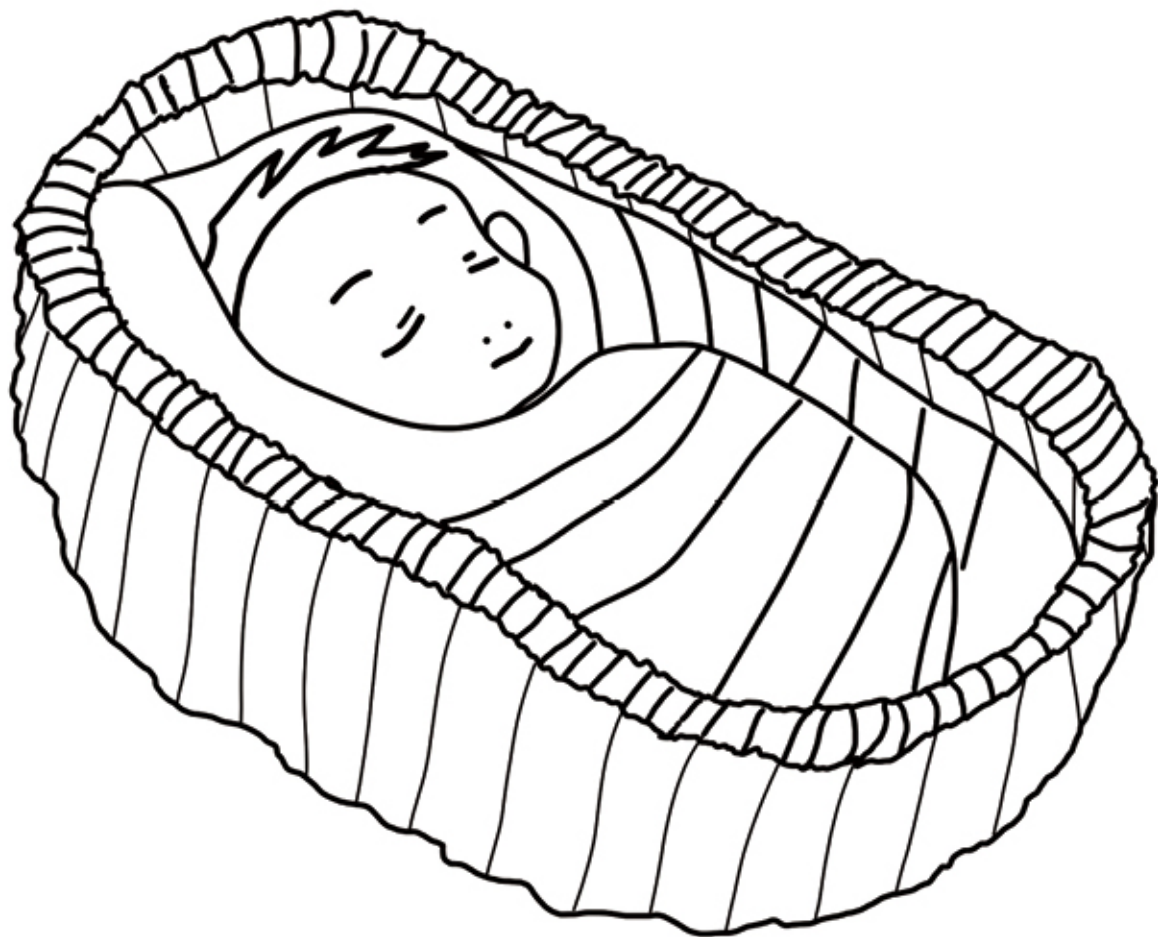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출애굽기 2:10b)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활동 1.

아기모세를 색칠하고 색종이 조각을 붙여 바구니를 꾸며보세요. (준비물: 색연필, 색종이, 가위, 풀)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